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천안함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

수많은 억측과 가설이 난무했던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의뢰에 의한 외부폭발로 밝혀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들지도 모르는 위기국면으로 진입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안보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연루됐다는 조사결과 발표가 나옴으로써 당분간 남북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확보됨으로써 유엔 안보리 회부와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남측의 무력시위, 대북심리전, 남북경협 축소,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과 관련한 움직임으로 한반도 정세는 초긴장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남측의 강경조치에 맞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전면 동결하고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거나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17일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서 '북 관련설'을 부인했던 북한이 합조단 발표와 동시에 '모략극',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측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검열단 파견을 제안한 것은 남측 조사결과를 부정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다. 또 다른 의도는 북의 공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경우 수뇌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5월 3일자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미대화의 흐름에 근거하여 올해 1월 당사국들에 새 협정의 체결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북연루설'은 "평화협정회담을 제의한 수뇌부의 의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강릉 잠수정 침투 때처럼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시인 · 사과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의 경우도 제시된 증거를 부인하면서 반발할 것이다.

검열단 파견 제의를 남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측은 이미 '과학적 방법'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나 군사당국자회담 등을 통해서 통보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한국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냉전시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국지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재래식 무기문제가 정세를 지배할 경우 핵무기문제 해결의 초점을 흐리게 할지도 모른다.

이번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남측 정부가 그동안의 남북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측에 돌리고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해나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북측도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고 하면서 위기 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경우 북한보다 수십배의 경제규모를 가진 남측이 잃을 것이 훨씬 많다. 군사적인 맞대응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위기관리에 주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로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갈등을 지속하면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세를 보고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 국지적 사건들이 정세를 지배할 경우 정작 북한 비핵화를 멀어지게 하고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벌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수산 스님
동국대 강사

추억의 저편 뒤안길

아버님이 1919년생이기에 해마다 삼일절만 되면 아버님의 연세를 따져보고 그리워하게 된다. 요즈음은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한참의 나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에 우리와의 인연의 끈을 놓으셨으니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참으로 아쉽기만 하다. 글쎄, 출가한 스님은 인연에 좀 더 의연해야 하겠지만 아직 수행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나 보다.

강원도 고성에서 월남하셨던 아버님께서 마흔이 넘은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보셨고 동생이 5년 터울인데, 쉰이 넘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자식에 대해 지극했을 당신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고 교수님께 전해 듣길,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끔 자랑도 하셨다는데, 과묵하신 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버님이기에 당신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

아버님이 우리 곁을 떠나실 즈음은 내가 건강 때문에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있을 때였기에 말년의 아버님과 줄곧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하느라고 가족과 떨어져 지냈는데, 생각해 보면 귀한 아들 보내고 그리워했을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배려된 인연의 사슬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인지 나 홀로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드렸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여기곤 한다.

그런데 정신이 맑지 못한 상황에서도 굳이 법당에 가서 참배하시는 아버님을 당시로서는 깊은 생각 없이 부축만 해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당신의 깊은 신심에 머리 숙이게 된다. 내게도 그런 신심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모태신앙으로 시작된 불교와의 인연은 동국대 불교학과의 입학과 더불어 본격적인 나의 삶이 되었다. 모두가 아버님의 제자들이셨던 교수님들이 왜 그리도 어려웠던지, 남들처럼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는 것이 내겐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공부할수록 생각나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은, 한 번도 아버님과 불교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가슴 아팠다. 그렇게 겁 없이 불교학을 택했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또한 당연하게 아버님과 같은 유식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였지만 아직 한 번도 나의 선택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다. 다만 당신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까지 노력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은 계속될 것이다.

마흔 중반의 나이에 출가해 대승원을 지켜 오신 어머님이 벌써 올해 팔순이시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사건들을 무난히 잘 넘기시고 이제 수원에서는 인정받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하신 당신의 신심과 열정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그 해 집안에 생긴 큰 우환은 어찌 보면 대승원을 지금의 도량으로 되게끔 배려된 인연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게 출가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평소의 생각보다 훨씬 빨랐지만 모두가 나와 부처님과의 인연이기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니,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해결된 것 같아 인연의 엄연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스님 · 불교학자로서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며, 법당에서 강의실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그렇지만 두 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당신들의 이름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은 참으로 만만치 않은 무게였다. 그러나 그 무게 때문에 언제나 곁길에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니,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마움이라고 생각한다.

초파일 준비로 바삐 보내는 요즘 갑작스런 원고부탁으로 기억의 저편 뒤안길에서 아버님을 만나 뵈니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련한 기분이다.

웃으실 때 언제나 소리 없는 파안미소를 지셨던 아버님과 엄격함과 자애로움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 세월의 덧없음에 많이 약해지신 어머님께서 늘 건강하시어 자손들의 효도를 오래오래 받으시길 기원한다.

사 설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

천안함 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는 냉각을 넘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민들은 북한을 응징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어쩌다 남과 북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어뢰 발사가 천안함 침몰의 근본원인일까. 대결을 해소하지 못한 한반도의 업보이다. 평화가 간절하다.

5월 21일 부처님오신날,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으며,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낭독됐다. 북한의 사찰에서도 발원문이 낭독됐다. "통일된 부강한 지상정토가 될 때까지 남과 북(북과 남)의 사부대중은 불국정토를 향하여 발걸음 맞추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험난하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물러섬 없이 우리 손으로 상호존중과 평화체제의 정착, 신뢰의 통일 민족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오세훈 ·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합장으로써 발원문에 동참했다.

어떤 전쟁이든 안하느니만 못하다. 전쟁상태까지는 아니어도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면 먹고사는 일이 더욱 힘들어진다. 응징과 책임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기도가 절실한 때이다. 남북불교도 공동발원문의 실현은 지금 우리 불자들의 긴급한 기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4대강 중단 성명

조계종 중앙종회가 5월 17일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명의로 '4대강 생명살림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전국 24개 교구본사와 선원 · 강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종회가 열리는 기간이 아님에도 성명을 발표한 것은 4대강 개발의 폐해가 너무나 크고, 매우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다는 것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매섭게 질타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안이 시급함에도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지한 숙고를 결여하고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종회는 또 "진정한 중도는 '바름'을 의미하며, 곧 균형과 조화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정부의 중도실용(中道實用) 정책은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한 수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는데, 대정부 성명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톤이었다.

지금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종단 집행부와 사부대중에게도 "생명살림과 대자대비심의 발로에서 무분별한 4대강 사업의 중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 권고를 계기로 집행부 또한 더 적극적으로 4대강 반대운동에 나서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